

연중 제5 주일

기도서 P. 342 A해

제1독서(이 사 58. 7-10)  
제2독서(고린 전 2. 1-5)  
복 음(마 태 5. 13-16)

# 솥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불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강론



## “세상의 빛과 소금”

김 희 남 신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지금 시대는 편하고 밝은 진동을 가지고 있기에 빛의 고마움을 덜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옛과 같이 어둠 밤에 호롱불 하나 가지고 살았던 시대에는 빛의 고마움을 반드시 느꼈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긴장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며 그 소금의 다소에 따라 김치의 맛이 달라지곤 합니다. 모든 음식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합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자신들이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우선 소금과 빛은 전체에 비해 소수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음식 전체의 간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소금은 절대로 많은 양의 것이 아닙니다. 빛도 호롱불 하나만 있으면 방안을 밝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또 소금과 빛은 비록 적은 양이지만 없어서는 안될 필수 불가결의 것입니다.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소금은 자신의 모습을 전체 속에서 녹여버리며 촛불은 자신을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하신 것은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다하라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죄악에 병들어 헤메일 때 마치 그 옛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희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잃었을 때 자신들의 올바른 표양으로 그 길을 보여주며, 세상의 평화가 깨졌을 때 평화를 찾는 방법을 과감히 부르짖고, 정의가 깨졌을 때 생명을 바쳐서까지 정의를 다시 세우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을 때, 이들을 위로하고 돌봐주는 일, 이 모두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소수의 의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의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모습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겁이나고 두려워기도 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헌신과 봉사의 길이며 자기 비하와 자기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월명동 천주교회 보좌신부)



## 자비(慈悲)와 정의(正義)

—정의를 구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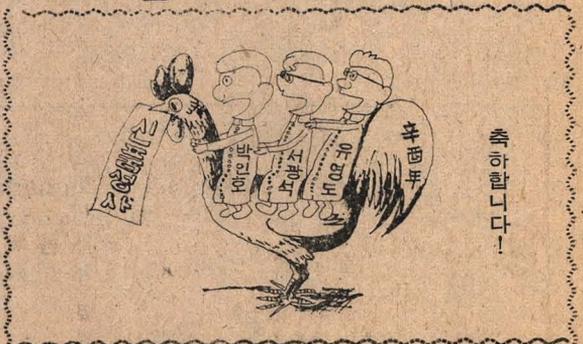
외신(外信)에 의하면, 필리핀의 악명높은 독재자 마르코스(政敵)인 아퀴노씨에게 사형을 언도하고(그것도 군법회의에서), 지금까지 16년간을 막강한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고 장기 독재를 해온 그다. 그는 작년에 그의 정적에게 눈곱만큼의 자비를 베풀었다.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였건, 가톨릭 신자인 마르코스는 아퀴노씨를 미국에 보냈다. 독재자들도 가끔은 국제 정치의 압력에 못이겨 어겨져 자비를 베풀기도 한다. 그리고는 큰 신심이라도 쓴 것처럼 큰 소리를 친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다.

사업가가 자기의 종업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면서, 어찌다가 병아리 눈물만큼의 보너스를 주고 큰 소리를 치며 자비를 베풀 것 처럼 말해서는 안된다. 근로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겠끔 생활급(生活給, 生存給)이 주어져야 한다. 가진자가 베풀어야 할 자비는 정의에 바탕을 두지 않아서는 안된다.

어떤 신문 만화에 ‘박찬희·오꾸마의 대결’은 재미있었는데, ‘어깨뽀를 두른 어떤 사람들의 대결은 체급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별 재미가 없었다고 그리고 있다. 정의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만화이다. 상대방을 묶어놓고 하는 경기는 정의가 없는 경기이기에 완전히 무효이다. 체급이 워낙 차이가 나는 경기에는 구경꾼도 모이지 않는 법이다.

우리는 독재자인 마르코스에게서도 배워야 한다. 독재의 수법이 아니라, 또 독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정의없는 사회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 정적을 비밀재판으로 묶어두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배워야 한다. 현실 세계에서의 첫째가 하늘나라에서는 말재(말찌)가 뒀을 배워야 한다.

## 솥 정이 산책



축하합니다!

### 교구 사무처 기구 보장

—교육 홍보실장을 사목국 차장으로 승격

전주교구는, 원활한 사목행정을 바탕으로한 선교 대열의 정비와, 제반 사목 체제의 확립을 위해 교구 사무처의 기구를 일부 개편, 보장키로 했다. 1월 25일자 교구 공문에 의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목국과 관리국에 「차장」제 신설**

사목국과 관리국에 각 국장의 업무 보필과 분담을 위해 각각 차장(次長)제를 신설하고, 차장에 사제를 충원한다.

사목국 차장은 교육 홍보실장인 김준호 신부를 승격, 임명한다. 단, 관리국 차장은 사제 부족으로 그 임명을 잠시 보류한다.

**□ 사목국에도 3과 신설코, 유능한 평신도 임용.**

관리국에는 이미 3과(서무과·관리과·사업과)의 업무 처리를 위해 평신도들을 임용한바 있다.

이에 준하여, 사목국에도 3과(상서과·교육과·홍보과)를 신설하고, 유능한 평신도를 채용하여 업무를 분장토록 한다.

**□ 교구보(敎區報) 숲정이 편집실은 사목국에 편입**

교구보 숲정이의 역할을 보다 중요시하고, 그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편집실을 사목국에 편입한다. 신설된 홍보과에서는 교구내의 제반 홍보 업무의 처리와 아울러, 숲정이의 편집, 발행 및 수발 업무를 담당한다.

단, 교구에 신설된 인쇄기의 운영 관리는 국리국에서 관장한다.

**□ 사목국 홍보과 주임에 이주철씨 임명**

(1월 25일자 숲정이 참조)

**□ 편집실 황실비아양 사임**

교구의 기구 개편에 따라, 그간 3년여에 걸쳐 숲정이 편집실에서 근무하던 황실비아양은 2월말일자로 사임키로 했다. 교구보 숲정이를 펴내기 위해 보이지 않는 뒷전에서 애써 온 실비아양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업무 처리의 매듭을 치을 수 있도록 교형 자매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본다.

따라서, 교구에 신설된 인쇄기의 타자 업무와 숲정이의 편집 보조를 위해 강옥희(글라라)양을 2월 1일자로 신규, 채용한다. 앞으로, 본당 소식의 접수, 숲정이 발송 업무는 글라라양이 담당한다.

### 교구 평협 사무국 보장

—차장에 이주철씨 임명

교구 평협은, 업무의 보다 원활한 처리를 위해, 평협 사무국의 실무 담당자로 자무차장에 이주철(야오보)씨를 임명했다. 평협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잦은 업무 연락과 긴밀한 관계가 요망된다.

### □ 들을 귀 □

### 인생 수수께끼

술한 의문부호(?)가 숲을 이루고 있는 인생.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왜 태어났으며, 왜 사는가? 인간은 왜 죽으며,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말도 있다. <살기 위해 먹는가? 먹기 위해 사는가?> 병아리가 물 한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듯 땅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 고개를 갸우뚱해 볼 말이다.

플라톤은 말하기를 <가장 존귀한 것은 산다는 것이 아니라, 잘 산다는 그것이다>고 하였고, 성 아우구스티노는 <잘 살지 아니한다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잘 산다는 것이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의치었다.

**인생 수수께끼의 정답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영구영(魚泳龜泳), 글자 그대로 물고기가 헤엄을 치는지 거북이가 헤엄을 치는지 모르게 그럭저럭 살 것인가? 아니다. 잘 살아야 하고 또한 영원히 살아야 한다. 영원한 삶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는 이 수수께끼가 우리를 질식시킬 것이다. (사목현장 22항 참조)

김종길 신부(부안 주임)

### 사 랑

### 박 요 한

어두움에 파묻혀  
정착지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던 이 영혼.

당신의 존재를 몰랐기에  
자신의 의미에 삶을 찾아  
헤매이던 미련한 중.

따스함이 필요한 영혼이기에  
차거운 귀향살이에  
버려져야만 했던 이 처참!

생정! 천대! 따들림!  
온갖 매서움에 떨어야 하는  
치치고 찢겨진 이 신세

부르시고 받아 주신 주여!  
부디 종의 응석도 외면하지 마시어  
당신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한  
사랑의 재가 되게 하소서.

□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소량도 신속 배달하겠습니다

### 한 미 주 유 소

전화 ② 5669 번  
주 최 남 수(아블로니오)  
(가톨릭 센타 사무장)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위크엔드  
Weekend



버킹검  
Buckingham



맥그리거  
McGREGOR

주니어·아동복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② 4451 율리안나

□ 교구소식

잠자는 교회?

—사도 수련(修練), 교육에 관심 쏘자—

어디에 헛점이 있는가? 병해로 뒤집힌 가슴, 곤두박질 치는 생활고, 게다가 묘하게 이는 선거와 정치기류까지 겹쳐 모두 뉘들이라도 다 빠져 버렸단 말인가? 아니면, 만사가 귀찮아 깊은 동면에 다 취해버린 탓인가? 도대체 알 길이 없다. 한심스럽다.

금년엔 오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 우리 모두 분발, 전교와 선교자세 재 정비에 박차를 가하자고 특별히 다짐한 해다. 그래서 더욱 배우고 닦고(修練) 힘을 모아서 우리의 선교체제도 강화하고 교회도 선양해야겠다고 강조하며 교구에선 년초 몇가지 사무지침과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헌데, 어인 일인지 손 발이 잘 안맞아 돌아간다. 어느 나사가 풀린걸까? 강행군을 우려했던 푸르실로는 그런대로 성황, 첫 결실치고는 무집해 보였지만 여타 교육에의 참가 열도는 빙점이하, 그야말로 냉랭하기까지 했다.

지난 1월 23~24일에 있었던 사도회장단 연수회엔 24개 본당에서 31명이 참가, 사도의식이 자못 희미해 보이더니 30일 개최기로 한 도내 교직자 연수회에는(성심, 해성교회외) 500명이 넘는 초·중·고 교사에 교직 10분(창인 2, 오룡동 3, 한들 1, 장제 1, 용안 3)의 선생님들만이 호응을 같이 해 줬다. 본당 신부님들이 무심해 선거?선생님들이 무지해 선거?참으로 지식이 아까운 오늘날을 새삼 느낀다. 그리고도 또 교육에 하루가 급한 교구 스케줄은 2월 2일 다시 공소회장단 연수회를 갖었다. 그러나 무슨 별일까? 이번에도 213개 공소에서 겨우 13개 본당 41분 회장님만이 참석, 오분함을 말하기엔 차마 민망코 쓸쓸하기 이룰데 없었다. 날씨 탓이요 명절 앞둔 절후 탓이라고는 하지만.....

대체 왜들 이러는가? 모두 어디에 취해 있는 것인가? 더 이상 동상(凍傷)에 걸리잖게 얼음 치고 어서 잠에서 깨어나자. 그래 피곤은 선열의 신앙, 200주년을 앞둔 한국 가톨릭 신앙의 얼을 어지러운 이 땅에 같이 묻쳐 펴 보자. 오늘날 교육, 내일엔 조직, 그리고 그 내일엔 우리 모두 하나로 굳게 결속하여 하느님 신앙의 백성, 온누리 비추는 진리의 참 등불 되게!

\* 2월 중 교육 안내

- 9~10일 : 사도회 임원 1차 연수, • 11~12일 : 공소 청년 지도자 연수, • 13~14일 : 사도회 임원 2차 연수, • 16~17일 : 사도회 감사 및 재산관리 위원장 연수 • 18~19일 : 본당 사무장 연수 • 19~20일 : 농촌 지도자(농민회 분회장)연수, • 23~25일 : 동계 교리교사 1차 연수, • 26~28 : 동계 교리교사 2차 연수

◎ 21일 오후 2시 : 교구 산하 단체 연석회의(지도신부, 간부)

요심이 (392) 김병오

어느당은 선거인후보자 확보와 추천서받기가 어려웠다고 밝혔으며...

후보등록을 마쳤다가 자진사퇴한수가 99명 이라는데...

정치학박사인 선생님의 그에대한 말씀을 듣고 싶소

에- 그이유는 첫재로 나도 모르겠오

□ 생화·각종화분·신부부케  
교우분들, 자주 들려주세요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띠도(덕배)·이 마리아

사원 모집 공고

당사는 수출품 섬유 업체로 급변 사세확장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미싱 기능공 및 보조공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아 래—

- 기능공 : ○○명
- 보조공 : ○○명
- 기 간 : 1981년 2월 1일~2월 15일
- 연 령 : 18세 이상
- ※ 미싱공은 특별 우대함

동양섬유공업사

대표 박 경 환(마태오)  
전주공장 전화 ⑥ 1193  
기타 상세한 것은 상기 전화로 문의바람

신비의 토롱진액 희소식

그간 저희 업소에서 토롱탕을 복용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업소에서는 대학 교수진에 의하여 개발한 토롱진액과 초밀란(버어몬트)를 소개하오니 배전의 애용과 성원을 앙원하는 바입니다  
효능 : 저혈압, 간질환, 육식후비만증, 신경통, 고혈압, 당뇨병, 식중독 예방, 헛기증, 만성 두통, 기관지질환 등에 효과있는 식품입니다  
<장수식품에서>  
가격 : 토롱탕과 토롱진액 20ml 4,000원, 토롱탕과 초밀란 15ml 4,000원

전주 토 롱 썬 타

구 성모병원 3층 322호실  
전화 ② 2301 오예환(바오로)

「토 용 탕」

보신 보양 고단위 영양식품  
각종 난치병에 효과가 좋음  
※ 토용을 양식하고자 하는 분에게 「안내서」를 드리겠습니다.  
무공해(無公害) 식품을 생산하는데, 세계 각국에서도 지렁이 농법(農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담을 바랍니다.

—연락처—

군산 토용센타(한일은행 뒤)  
전화 ③ 1636  
전주 전동 대건 다방  
(대건신용조합 지하)  
전화 ⑥ 9740  
유 석 증(스테파노)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사도회 임원 1차 연수회...9일(월) 오후 2시~10일(화), 가톨릭 센터에서
2. 공소 청년지도자 연수회...11일(수) 오후 2시~12일(목), 가톨릭 센터에서
3. 사도회 임원 2차 연수회...13일(금) 오후 2시~14일(토), 가톨릭 센터에서
4. 전주교구 중·고 연합회 22대 정기총회 연기...2월 22일(일) 오전 10시로  
각 분당 신·구 회장단 및 임원들이 많은 참석을 바라며 23대 회장단 후보에 많은 입후보 바랍니다.  
입후보자는 추천서 1통을 20일까지 가톨릭센터 중·고연합회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 입후보 자격-전주시내 거주자로 현재 고등학교 1년생, 영세한지 만 3년이상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문 정 현  
보좌 신부 보좌 인 환  
보좌 신부 보좌 인 환  
사도 회장 사도 회장

1. 새 신부 환영 : 공식미사 후
2. 사도회 : 2월 11일 오전 11시 강당  
사도회 고문·감사·회장·구역장·판장·심신단체  
회장·부회장 전원 참석 바랍니다(웃놀이대회 있음)
3. 꾸리아 월례회 : 오후 2시 강당
4. 고등학생회 정기총회 : 8일 학생미사 후
5. 병자 방문 : 10일 10시
6. 전례분과 위원 모임 : 공식미사 후 (사무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사도 회장

1. 반희장님회 : 공식미사 후  
반장님들은 회의실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꾸리아 첫 회합 : 오늘 오후 2시  
Pr 간부님들은 Pr 회의실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할머니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예비자 교리 : 매주 공식미사 후
5. 성심회 : 10일(화) 오후 2시
6.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 조동근 ② 강남준  
신자들의 기도-은노균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보좌 중 준  
보좌 신부 보좌 중 준  
사도 회장 사도 회장

1. 베소라 성서강의 : 매주(화) 저녁 7시 30분~9시30분
2. 수녀님들을 위한 베소라 성서특강 : 매주(월) 오후 2~4시까지
3. 분당 꾸리아 회합 : 오늘 오후 2시  
각 팀의 간부님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금주의 성경읽기 : 창세기 전체
5. 성모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6. 신우회 월례회 : 오늘 저녁미사 후
7. 성령기도회 : 매주(금) 오후 2~4시까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8. 과년도 교무금을 납부합니다  
교회와의 약속은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사도 회장

1. 사도회·신협이사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청년회원 성가연습 : 매주 토요일 7시 30분
3. 청년회에서 레지오를 창설하오니 뜻있는 청년들은  
2월 7일 7시 30분에 나와 주세요
4. 성모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다음주 전례담당 : 해설-이기호  
독서-남상용·이철수, 기도-정주복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보좌 유 영  
사도 회장 사도 회장

1. 유영도 신부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예비자 교리 : 2월 15일부터, 많은 예비자 인도 바랍니다
3. 작년도 교무금 미수 완납바랍니다
4. 오늘 미사중 예비자 환영
5. 81년 교무금 빠지신분 수입 바랍니다(사무실에)
6. 금주전례 : 해설-이영남  
독서-한인수·소원영, 기도-전중근  
차주 해설-김은식, 독서-김기·김의곤,  
기도-정경신
7. 덕진신용조합 특별헌금 : 20,00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병 열  
보좌 신부 보좌 병 준  
사도 회장 사도 회장

1. 자모회 : 공식미사 후
  2. 장우회 정기총회 : 저녁미사 후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3. 성화회 : 다음주(15일)
  4. 예비자교리 개학(15일부터)  
일반-10시미사 후  
청년·직장인-매주 수·목요일 저녁미사 후  
학생-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5. 헌금담당자 위촉 : 주일 아침미사-파티마 모후,  
9시미사-수녀님, 10시미사-사도회, 저녁미사-빈  
첸시오 아빠올로회, 토 학생미사-수녀님
  6. 다음주 전례담당(15일)  
아침미사 : 사회-이준영, 독서-① 이덕수 ② 최병래  
공식미사 : 사회-이진홍, 독서-① 박순기 ② 안득수  
저녁미사 : 사회-김운주, 독서-① 김동수 ② 이진홍
- ☐ 지난해 불헌금 : 432,695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태  
보좌 신부 보좌 희 남  
사도 회장 사도 회장

1. 환영 : 김희남(베드로) 보좌신부님  
전신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예비자 교리 : 매주일 공식미사 후-히메사씨 지도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김희남 보좌신부님 지도
3. 성우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양규철·김웅식 형제
4. 80년도 불헌금 미수 속히 완납 바랍니다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사도 회장

1. 꾸리아 회합 : 오늘 오후 1시 30분
2. 수녀원 신축헌금 수입하신 분들은 날씨가 풀리어 내  
부공사를 하게되오니 빨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레지오 브레시디움 탄생 :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현재 7개의 브레시디움에 활동단원이 백여명  
입니다
4. 여성 꾸리실로 : 참석하실 분은 다음주까지 신청바랍니다
5. 사도회 임원 연수회 : 2월 9~10일, 2월 13~14일까  
지 2차에 있으니 각자 자유롭게 택하십시오